

■ 논문 ■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경험한 프랑스  
혁명  
: 프랑스혁명에 대한 시각과 이상적 정치체제, 1792-1795\*

김 대 보

I. 들어가는 말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 1750-1816)는 베네수엘라의 독립 영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독립을 맞이한 베네수엘라에서 짧은 기간(1812년 4월~7월)이었지만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다. 남아메리카 출신 에스파냐인으로서 당대 아메리카와 유럽 양 대륙에서 모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프랑스 혁명 전쟁에 참가한 군인으로서 파리 개선문에 이름이 새겨진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그의 동상이 파리 17구의 라틴아메리카 공원(Square de l'Amérique-Latine)에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자유를 꿈꾸고 프랑스를 위한 전공을 세우기도 한 그에게 프랑스혁명은 빛과 같은 사건만은 아니었다.

1793년 3월 21일, 국민공회가 벨기에 주둔군에 파견한 대표단은 “미란다 장군이 지체 없이 국민공회 연단”에 서서 조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sup>1)</sup> 1792년 9월, 발미(Valmy) 전투 이후 줄곧 승리를 거두면서 벨기에까지 점령했던 북부군단(l'armée du Nord)이 네덜란드로 무리하게 진격했다가

---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1)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0, p. 510.

패배하면서 후퇴하게 된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포위전 및 퇴각이 문제가 되었다. 미란다는 북부군단의 사령관 뒤무리에(Charles-François Dumouriez) 휘하에서 1792년 말에 거둔 프랑스군의 승리에 기여했지만, 이제 신생 프랑스 공화국을 배신한 장군으로 낙인찍히기 직전이었다. 더욱이 당시 뒤무리에도 네르빈덴(Neerwinden)에서 패배한 후 오스트리아와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란다가 대한 의심도 강해진 상태였다.

정말 미란다는 프랑스를 배신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란다 자신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베네수엘라 출신 장군이 원한 것은 억압 받는 사람들의 자유 회복이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란다는 뒤무리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참가한 전투가 벨기에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회복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 또한, 브리소(Jacques Pierre Brissot)는 미란다가 카리브해로 보내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균열을 일으킬 계획을 세울 정도였다. 그래서 브리소는 뒤무리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마지막 혁명의 운명은 단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 그는 바로 미란다이다.”<sup>2)</sup>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미란다는 영국에서 윌리엄 피트(William Pitt)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고, 끊임없이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같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해방을 논의하기도 했다. 물론, ‘자유’만을 생각한다는 측면은 미란다 측의 일방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군주들, 특히 에스파냐 군주가 아메리카 식민지와 관련하여 위험한 인물로 봤다는 점과 같이 생각한다면 ‘자유’와 미란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그리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란다가 항상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정의를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다.

2) “Lettre de Brissot, Député à la convention Nationale, au Général Dumouriez, Paris, le 28 Nov. 1792”, Aristides Rojas, ed., *Miranda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Recueil de documents authentiques relatifs à l’histoire du Général Francisco de Miranda, pendant son séjour en France de 1792 à 1798* (Caracas: Imprimerie et Lithographie du gouvernement national, 1889), p. 2.

그리고 왕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급진적인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미란다의 유럽 여행이 가진 인류애적인 측면을 분석한 자크 수베루(Jacques Soubeyroux)는, 당대인들이 겪는 고통,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투쟁 등에 민감했을지라도 미란다는 어쩔 수 없는 귀족이었다고 말했다. 수베루에 따르면, 미란다가 1787년 이후에 작성한 여행기 및 여러 글에서 빈곤의 분석과 부조 방식 등 현대적 개념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는데, 귀족 출신이었고, 또 귀족의 삶을 살았다는 점 때문에 미란다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부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부조의 질에 더 신경을 썼다. 또한, 계몽전제군주의 상징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2세를 칭송할 정도로 군주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군주제가 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결국 미란다는 자선(charité), 동정(piti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류애 차원의 주장만 했을 뿐이었다.<sup>3)</sup>

물론 미란다가 구체적인 사회적 개혁이나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그가 걸음으로 보여준 행동은 분명 자신이 태어난 남아메리카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투옥된 이후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에서도 자신이 가진 자유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란다의 표면적인 행동과 글을 토대로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전기에서는 대체로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미란다가 정치적 희생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프랑스의 의심을 받다가 결국 은밀하게 영국으로 떠났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프랑스에서 남아메리카 해방의 희망을 걸었지만 억울함 속에서 희망을 버리게 됐다는 것이다.<sup>4)</sup> 사실 이러한 전기는 베네수엘라의 해방자로서 미란다가 남아메리카 해방을 위한 다양한

3) Jacques Soubeyroux, "Francisco Miranda, voyageur et philanthrope(1787-1789)", *Cahiers du monde hispanique et luso-brésilien*, no. 17(1971), pp. 37-55.

4) Carmen L. Bohorquez-Moran, *Francisco de Miranda. Précurseur des indépendances de l'Amérique latine* (Paris: L'Harmattan, 1998) ; Karen Racine, *Francisco de Miranda. A Transatlantic Life in the Age of Revolu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2003) ; Paul Anselin, *Francisco Miranda. Le héros sacrifié* (Paris: Jean Picollec, 2017).

길을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프랑스 체류를 언급하고 있고, 비교적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 글에서 밝히려는 것은 프랑스에서 미란다의 행적에 대한 풍성한 조망이 아니다. 오히려 미란다가 프랑스 체류 중에 작성한 편지 등 여러 글을 통해서 당대의 프랑스혁명 인식 속에서 그의 생각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고찰해보려고 한다. 흔히 ‘자유를 위한 선각자’(précurseur de liberté) 또는 ‘독립을 위한 선각자’(précurseur de l'indépendance)라고 불리는 미란다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여행 끝에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던’ 프랑스에 1792년 4월에 왔고, 의회로부터 군대 장교직을 제안받았다.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진행되고 있던 프랑스혁명과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공화국 군대의 일원이 된 미란다는 왜 떨어진 것일까? 그리고 미란다는 프랑스혁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미란다의 ‘국경을 넘나드는 삶’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그가 겪은 프랑스혁명, 그리고 투옥 및 석방으로 인해 프랑스혁명기 10년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었던 1793-94년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란다라는 한 인물을 통해 대서양 세계가 바라보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방대한 주제의 한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sup>5)</sup>

5) 프랑스혁명과 함께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에 퍼진 혁명의 물결을 모두 포함하는 ‘대서양 혁명’(Atlantic Revolution)이라는 테제가 1950년대 이후 제기되었다. 이 테제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민주주의 혁명의 시대』(*The Age of Democratic Revolution*)을 쓴 로버트 파머(Robert R. Palmer)와 『혁명들』(*Les Révolutions*, 영문 번역서의 제목은 『프랑스와 18세기의 대서양 혁명』)을 쓴 자크 고드쇼(Jacques Godechot)였다. 프랑스혁명을 결코 지리적으로 프랑스에 국한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대서양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저항과 전복의 역사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논의를 이어받아 피에르 세르나(Pierre Serna)는 『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에서 논의의 시공간적 범위를 더욱 넓혀 근대성이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대서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일어난 혁명의 원인을 분석했고, 그에 따라 ‘모든 혁명은 독립전쟁’이라는 테제를 주장했다. 즉, 식민지와 모국이라는 관계에서 주변부와 중심부, 그리고 내부의 식민지와 모국이라는 구도를 도출해냈고, 그에 따라 모든 혁명은 스스로 일어나려는 주변부가 일으킨 중심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프랑스혁명 역시 독립전쟁이었고,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식민지의 독립 혁명은 대서양 혁명의 시대에 대서양 전체에 혁명의 불을 지른 사건이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고 : Pierre Serna, “Toute révolution est guerre d'indépendance”, Jean-Luc Chappey, Bernard Gainot, Guillaume

## II. 방랑자 미란다

프랑스에서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가 행적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프랑스에 오기 전 그의 여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미란다는 1750년 3월 28일에 카라카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세바스티안 데 미란다(Sebastian de Miranda)는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에스파냐령 테네리페 섬 출신으로 대서양을 건너 카라카스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이미 카라카스에 정착한 카나리아 제도 출신 사람들 덕분에 세바스티안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었고, 직물공장과 제과점 사업을 포함한 몇 가지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크레올이었던 프란시스코 에스피노사(Francisca Antonia Rodriguez de Espinosa)라는 여성을 만나 1749년 4월 24일에 결혼했다.<sup>6)</sup> 이 부부 사이에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였고, 1764년까지 동생 9명이 더 태어났다.<sup>7)</sup>

예수회 교사들의 교육을 받은 미란다는 1762년에 카라카스의 대학에서 라틴어, 수사학 등을 배웠고, 1767년에 졸업했다.<sup>8)</sup> 선조들이 에스파냐 국왕에게 봉사한 전력을 일종의 명예로 생각한 미란다는 카라카스 귀족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분노했고, 가족이 자신의 한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카라카스를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1771년 1월 25일, 스웨덴 국적의 한 프리깃함을 타고 유럽으로 향했다. 이 시기부터 미란다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의 해방 및 독립을 꿈꾼 것은 아니었지만, 훗날 미란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란다가 대서양을 건너 일도 ‘자유의 선각자’라는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

Mazeau, Frédéric Régent, Pierre Serna, *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6) Karen Racine, *Francisco de Miranda*, pp. 1-2.

7) 이 동생들 중 7명이 요절했고, 특히 1764년에 태어난 막내는 1년도 채 살지 못했다(Ibid., p. 2, 260).

8) 대학 측의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대학 입학 자격 학위를 받은 것이 유력하다(Ibid., pp. 3-4).

프랑스혁명 당시 감옥에 갇힌 미란다가 변호하기 위해 작성된 작자미상의 한글에는 미란다가 카라카스를 떠나는 시점에 이미 “도덕적 인간의 삶의 원칙”을 체화했고, 자신이 태어난 곳에 “자유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쓰기까지 했다.<sup>9)</sup>

고향을 떠난 미란다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에스파냐였다. 1771년 3월 21일에 마드리드에 도착한 미란다는 마드리드의 사관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식민지 출신인 크레올에게는 본국의 사관학교 문턱을 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대위 계급장을 샀고,<sup>10)</sup> 프랑스 책과 프랑스인 교사를 수소문하여 주로 군대와 관련된 공부를 했다. 1775년, 당시 에스파냐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였던 멜리야(Melilla)를 모로코의 술탄 시디 모하메드(Sidi Mohamed)가 공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졌고, 미란다는 에스파냐 파병대에 소속되어 전투에 참가했다.<sup>11)</sup> 이어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에스파냐는 1779년에 영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미란다는 파병군 사령관의 야전 부관이 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고, 이곳에서 워싱턴, 해밀턴 등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미란다가 미국 독립과 관련된 인물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미란다는 더 이상 에스파냐에 머물 수 없었다. 에스파냐 궁정은 미란다가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의 싹을 틔울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란다는 스스로 여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독립에 성공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전역을 돌아본 후, 미란다는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스, 콘스탄티노플 등지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의 배려로 군사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로잔에서는

---

9)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이하 BNF), LB41-4219, Anonyme, *Précis pour Miranda*, sans date, pp. 2-3. 이 글 첫머리에 로베스피에르는 더 이상 세상에 없고 미란다가 아직 16개월째 감옥에 갇혀있다고 쓰여있는 것으로 보아 1794년 11월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0) Josefina Rodriguez de Alonso, ed., *Le siècle des Lumières conté par Francisco de Miranda* (Paris: Editions France-Empire, 1974), p. 23.

11) *Ibid.*, p. 25.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을 만나기도 했으며,<sup>12)</sup> 러시아에서는 예카테리나 2세로부터 관직과 함께 러시아에 남으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유럽 각지를 방문하면서 각국의 군사 관련 분야의 차이점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노예제와 자유, 역사, 정치, 지리에 대한 나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sup>13)</sup> 또한, 영국의 사회개혁가였던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쓴 <병원과 감옥에 대하여>를 읽은 뒤, 1787~89년의 여행에서는 복지, 자선, 의료 기관 및 교정 기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프랑스 남부 지방의 가난에 대한 분석을 여행기에 기록하기도 했다.<sup>14)</sup>

미란다가 프랑스로 향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머물고 있던 곳은 런던이었다. 1789년부터 런던에 머물기 시작한 미란다는 1790년에 에스파냐와 인연을 끊었다. 여행 중인 1785년부터 에스파냐 군대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1790년에 오히려 에스파냐 왕실로부터 마드리드에 직접 출두하여 미란다의 충성심이 정말로 순수한 것인지 증명하라는 서한을 받았다. 고심 끝에 미란다는 에스파냐의 요구대로 하느니 외국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며 살겠다면 사실상 에스파냐의 종복이 되길 거부했다.<sup>15)</sup> 영국 식민지의 독립 전쟁에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가담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가져왔듯이, 영국의 협력으로 광대한 아메리카 식민지에 독립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William Pitt)에게 아메리카 해방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sup>16)</sup> 미란다는 자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피트가 자신의 계획을 곧 실행에 옮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곧 허상으로 드러났다. 이제 미란다는 자신의 생각을 받아줄 다른 나라로 이동할 생각하기 시작했다.

---

12) *Ibid.*, pp. 583-587.

13) BNF, LB41-4219, *Précis pour Miranda*, pp. 4-7.

14) Jacques Soubeyroux, "Francisco Miranda, voyageur et philanthrope(1787-1789)", pp. 37-55.

15) Josefina Rodriguez de Alonso, ed., *Le siècle des Lumières*, pp. 647-648.

16) *Ibid.*, p. 649.

### III. 프랑스군 장교 미란다 : 짧았던 봄날

1792년 3월, 윌리엄 피트와 그리 좋지 않은 결말을 남긴 미란다는 파리에 도착했고, 미란단의 머리는 여전히 아메리카 해방이라는 주제로 빈틈이 없었다. 미란다가 프랑스에 온 목적은 자신의 남아메리카 해방 계획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프랑스로부터 받는 것이었다. 더욱이 생도맹그(Saint-Domingue)에서 시작된 혁명, 그리고 ‘흑인’ 및 ‘유색인’들의 참정권 요구 등 당시 프랑스에서는 미란다가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핵심 주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미란다는 런던 체류 중에 이미 브리소(Jacques Pierre Brissot, Brissot de Warville)와 가까운 인물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1789년에 런던에서 페티옹(Jérôme Pétion de Villeneuve) 등 브리소의 친구로 알려진 사람들과 만났고, 미란다가 에스파냐 식민지의 해방을 위한 계획을 윌리엄 피트에게 제출했을 때에도, 이 계획은 브리소의 인맥을 통해 파리로 이미 알려지기도 했다.<sup>17)</sup> 그리고 이러한 인맥은 1792년에 프랑스 외교 부문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던 브리소파의 남아메리카 계획에 미란다가 포함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파리에 도착했을 때부터 미란다는 지롱드파가 자주 가는 살롱에 자주 나가면서 지롱드파 주요 인물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주요 인물 중에는 전쟁부 장관 세르방(Joseph Servan)이 있었다.<sup>18)</sup>

1792년 8월, 미란다는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페티옹과 만났다. 페티옹은 이미 세르방 전쟁부 장관에게 미란다가 프랑스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였다. 세르방은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미란다가 외국인이었다는 점

---

17) Marcel Dorigny, “Brissot et Miranda en 1792, ou comment révolutionner l’Amérique espagnole?”, Marcel Dorigny et Marie-Jeanne Rossignol (dir.), *La France et les Amériques au temps de Jefferson et de Miranda* (Paris: Société des études robespierristes, 2001), pp. 97-99.

18) *Ibid.*, p. 98.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페티옹이 거듭 설득하면서 세르방의 허가를 받아 미란다는 프랑스군의 장교가 되었다. 미란다는 아메리카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이제 없고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르방이 그에게 제안한 장교직을 수락했다.<sup>19)</sup> 그리고 그에게 프랑스에서 자유를 위해 싸워서 자유의 전진을 이뤄낸다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sup>20)</sup>

미란다가 9월 11일에 배치받은 부대는 뒤무리에가 이끌던 북부 군단(*armée du Nord*)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군대와 맞서고 있던 이 군단은 9월 20일, 발미(Valmy)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줄곧 수세에 몰려있던 전황을 바꾸어놓았고, 이튿날 프랑스는 공화국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또한 11월 6일에는 제마프(Jemappes)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벨기에를 사실상 점령했다. 미란다가 역시 뒤무리에 휘하에서 프랑스 전쟁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이 두 전투에 참가했다. 그리고 미란당을 카리브해로 보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것은 바로 제마프 전투 직후였다. 북부 군단에 배속된 미란당의 전공 덕분에 브리소가 미란당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1792년 11월 28일, 브리소는 뒤무리에에게 전공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 미란당에 대한 본심을 꺼냈다.<sup>21)</sup> 브리소는 “자유와 폭정 사이의 목숨을 건 전투”, 그리고 “낡은 게르만 헌법과 새로운 프랑스 헌법 사이의 혈투”를 통해 뒤무리에가 곳곳에 “자유 나무”를 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르봉 가문의 그 누구도 왕좌에 있을 수 없다”는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썼다.<sup>22)</sup> 그리고 이 부르봉 가문이 왕좌에 있는 나라는 에스파냐였고, 에스파냐 본국이건 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식민지이건 에스파냐 영토에 자유를 이식하기 위해 프랑스의 혁명을 에스파냐로

19) Karen Racine, *Francisco de Miranda*, p. 114.

20) *Ibid.*, p. 115.

21) “Lettre de Brissot, Député à la Convention Nationale, au Général Dumouriez, Paris, le 28 Nov. 1792”, Aristides Rojas, ed., *Miranda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p. 1.

22) *Ibid.*, p. 2.

확장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브리소가 보기에 이 계획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미란다였다. 그리고 당시 공석이었던 생도맹그의 총독직에 미란다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미란다였을까? 브리소는 뒤무리에에게 미란다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란다는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다름을 곧 가라앉힐 것이다. 미란다는 저렇게 난리치는 백인들을 설득할 것이고, 또한 유색인들(*gens de couleur*)의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에스파냐령 섬 및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봉기를 일으키게 만들 것인가? 생도맹그 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12000명이 넘는 부대와 우리의 식민지에서 징집한 용감한 혼혈인 병사 1만~1만 5천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에스파냐 영토를 침공할 것인가? ... 미란다는 이름은 에스파냐 식민지에게 군대와 같다. 미란다는 재능과 용기 등은 우리에게 성공을 말해준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 에스파냐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보기 전에 미란다가 생도맹그로 떠나야 한다. 미란다가 임명한다면 에스파냐에 한 방 먹일 수 있고, 늑장부리는 피트의 정책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에스파냐는 이제 힘이 없고, 영국은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sup>23)</sup>

우선, 브리소는 크레올이었던 미란다가 통해 당시 외교적인 상황을 이용해 에스파냐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프랑스의 여러 권력자들 사이에서 에스파냐 식민지 문제는 1792년 8월부터 논의의 대상이었다. 영국, 미국 등의 협력을 통해 대서양에서 에스파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계획의 중심에 바로 브리소가 있었고, 브리소는 전쟁부, 외교부, 재정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협력을 얻어냈다.<sup>24)</sup> 그리고 당시 프랑스는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보면, 북동부 국경지대 전선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벨기에를 점령했지만, 루이16세를 폐위시키면서 왕정을

23) *Ibid.*, pp. 2-3.

24) Marcel Dorigny, “Brissot et Miranda en 1792”, p. 99.

몰락시켰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 내에서 경제 대상이었다. 그렇더라도 영국은 아직 프랑스와 오스트리아-프로이센 동맹의 대립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다. 영국은 1790년에 오스트리아의 벨기에 통치를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벨기에 점령은 영국으로서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영국과 동맹관계인 네덜란드(Provinces-Unies)의 턱밑까지 프랑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영국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벨기에의 점령을 ‘방어 전쟁’의 일환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아직 프랑스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다.<sup>25)</sup> 따라서 브리소는 이러한 영국의 유보적인 태도를 이용하여 유럽 밖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스파냐의 영역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렇듯 미란다는 1792년 하반기에 외교 분야를 지배하고 있던 브리소 및 그의 일파가 세운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미란다가 과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연하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다. 전술했듯이, 미란다가 가진 아메리카 해방 계획, 미란다와 브리소 사이의 인맥, 그리고 브리소파가 가진 대(對)에스파냐 계획이 서로 맞물린 결과였다. 남아메리카에서 이미 인지도가 있고, 아메리카 해방에 뜻이 있으며, 그에 따라 아메리카인들의 독립 열망을 자극할 수 있고, 또한 당시 프랑스의 권력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상태였으며 더욱이 현재 프랑스에 있어서 접촉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미란다는 단연코 브리소파가 가장 원하는 인물이었다.

마르셀 도리니(Marcel Dorigny)에 따르면, 프랑스가 남아메리카 독립 열망에 개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다는 순수한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브리소파와 미란다가 생각한 아메리카 해방 계획에서 현재와 같은 여러 독립국은 없었다. 미국과 같이 연방으로 통합된 거대한 국가가 존재할 뿐이었다. 또한, 브리소파의 계획에서 에스파냐 부르봉 왕실의 힘을 축소시키기 위해 프랑스 혁명을 남아메리카에 수출하고 남아메리카의

25)Patricia Chastain Howe, *Foreign Policy and the French Revolution: Charles-François Dumouriez, Pierre Le Brun, and the Belgian Plan, 1789-1793*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 131.

해방을 추구하는 이유는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전복시켜 방대한 영토를 부분적으로라도 나눠 가지는 것이었다. 브리소파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프랑스는 생도맹그의 에스파냐 통치 지역과 멕시코를 얻게 될 것이었다.<sup>26)</sup>

그러나, 미란다는 브리소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했다. 자신이 생도맹그로 간다면 에스파냐와 영국 모두 경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 자신은 에스파냐령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생도맹그와 같은 프랑스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27)</sup> 또한, 미란다는 브리소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결정하자고 했는데, 이 점은 미란다가 과거 자신이 피트에게 제출한 계획이 브리소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었다.<sup>28)</sup> 이후에도 미란다가 브리소는 수차례 더 편지를 주고받았고, 브리소는 1793년 1월에 뒤무리에와 파리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브리소의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브리소 개인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1792년 12월부터 시작된 루이16세 재판에서, 브리소는 루이16세의 사형에 반대했고, 이 문제로 로베스피에르로부터 피트에게 매수당한 녀석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었다. 물론 마지막에 루이16세 처형에 찬성했지만, 산악파(montagnards)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고, 그의 정치적 입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영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더 이상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가 벨기에를 점령한 점에 대해서는 ‘방어 전쟁’이라는 프랑스의 명분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 프랑스가 네덜란드까지 침공할 수도 있다는 점은 벨기에와 다른 문제였다. 또한, 프랑스가 이제 혁명을 각지로 확대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영국은 스스로 비상사태임을

---

26) Marcel Dorigny, “Brissot et Miranda en 1792”, pp. 103-104.

27) “Le Général Miranda à Brissot, membre de la Convention Nationale, Président du Comité de Défense Générale, Liège, le 19 décembre 1792”, Aristides Rojas, ed., *Miranda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pp. 5-6.

28) Marcel Dorigny, “Brissot et Miranda en 1792”, p. 102.

선포했다. 물론, 영국은 비공식적으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프랑스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sup>29)</sup> 즉, 브리소의 생각처럼 미란다를 생도맹그로 보내면 영국의 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가 혁명을 실제로 곳곳에 퍼트리고 카리브해의 영국령 섬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경보를 울릴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뒤무리에와 국민공회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벨기에가 독립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도록 도와주자는 뒤무리에의 생각과 다르게, 국민공회는 당시 프랑스가 겪고 있던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벨기에를 프랑스에 병합하여 프랑스와 똑같은 제도를 이식하여 세금 징수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sup>30)</sup> 즉,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점령 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계획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전승 장군들을 경계하는 정치인들의 불안감도 있었다. 뒤무리에는 이 결정 때문에 벨기에인들에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신의 선언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고, 이는 곧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뒤무리에는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직접 파리로 향했지만, 당시 파리의 분위기는 뒤무리에가 벨기에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결국 뒤무리에 휘하에 있던 미란다 역시 쉽사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1793년 2월, 매우 위험한 반역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던 뒤무리에와 함께 미란다의 프랑스군 장교로서 삶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1월 말, 파리에서 돌아온 뒤무리에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네덜란드 공격을 계획했고, 2월에 군사 행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뒤무리에가 이끌던 군대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보급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뒤무리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네덜란드 침공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미란다에게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공격을 지시했다. 미란다는

---

29) Patricia Chastain Howe, *Foreign Policy and the French Revolution*, pp. 133-135.

30)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줄고 참고 : 김대보, 『뒤무리에(Dumouriez)의 망명 -명예를 이용한 변명의 탄생-』, 『프랑스사 연구』, 42호(2020), 5-35쪽.

뒤무리에의 명령에 따라 마스트리히트를 공격했지만, 그에게 소속된 포병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고, 공격은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급기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대규모 군대를 마스트리히트에 집결시키면서 미란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미란다가 마스트리히트 작전에 실패하고 후퇴까지 하게 되면서 국민공회는 3월 23일에 미란다에 대한 긴급 소환 명령을 내렸다.<sup>31)</sup> 3월 29일에 파리에 도착한 미란다는 4월 8일 저녁, 국민공회 산하 전쟁위원회(comité de la guerre)의 조사를 받았다. 마스트리히트 공격 명령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공격 상황은 어땠는지 등 전투의 세세한 사항과 함께, 네르빈덴(Neerwinden) 전투 패배 이후 국민공회가 파견한 대표단까지 오스트리아 군에 넘기면서 프랑스를 등진 뒤무리에의 반역에 대한 질문이 신문 내용이었다.<sup>32)</sup> 사실이 신문과정을 통해 드러내려던 것은 미란다가 뒤무리에와 함께 프랑스의 이익을 배신했다는 정황이었지만, 실제 드러난 것은 없었다. 미란다 휘하 장교들이었던 라누(Lanoué)와 스탕젤(Stengel, 일부 사료에서는 Stingel 또는 Steingel)을 앞서 조사했지만, 그들은 마스트리히트 전투와 관련하여 모든 명령을 미란다로부터 받았을 뿐이라고 대답했고, 미란다는 뒤무리에의 서면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전쟁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전에 따로 준비한 글에서 미란다는 마스트리히트 작전 이후에 뒤무리에가 자신을 멀리했다고 말하면서 뒤무리에의 반역과 관련이 없음을 피력했다.<sup>33)</sup> 결국 국민공회는 미란다를 혁명재판소(tribunal révolutionnaire)로 보냈고, 혁명재판소는 1793년 5월 16일 미란다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sup>34)</sup>

31)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0, p. 510.

32) BNF, LB41-618, *Extrait du procès-verbal des délibérations du comité de la guerre, Séance du Lundi 8 avril, huit heures du soir. Interrogatoire du général Miranda.*

33) BNF, LB41-598B, *Miranda à ses concitoyens. Discours que je me proposais de prononcer à la Convention Nationale, le 29 Mars dernier, le lendemain de mon arrivée à Paris.*

34) BNF, 8-PM-266 (12),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I, Revolución francesa: Causas judiciales, Proceso militar y prision política de Miranda 1793 a 1795* (Caracas: Editorial Sur-America, 1931), pp. 344-355. 판결문에 따르면, 미란다를 즉시 석방할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

#### IV. 투옥된 미란다, 항변, 그리고 비난

미란다는 혁명재판소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1793년 7월 11일, 국민공회는 미란다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up>35)</sup>

왜 미란다는 체포되었을까? 체포 명령이 내려지던 날, 캉봉(Cambon)은 국민공회에서 루이16세의 아들을 루이17세로 옹립하려는 음모가 불과 며칠 전에 발각되었고, 그 음모의 주동자는 딜롱(Dillon) 장군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캉봉의 발표에 따르면 딜롱의 지시를 받는 장교 12명이 파리에 있고, 그 중 5명은 딜롱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부하 5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캉봉은 딜롱 장군과 그의 수하 가운데 일부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일과 미란다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 미란다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후 파리에 있었는데, 캉봉에 따르면 보르도에 특별 우편을 보낸 적이 있었고, 이 편지에서 곧 보르도에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캉봉은 미란다가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마침 루이17세 옹립 음모가 드러난 직후였고, 보르도에서는 왕정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발표했다.<sup>36)</sup>

미란다는 파리 시장의 방해로 파리 밖으로 떠날 수 없었고, 결국 파리의 거처에서 체포되었다. 미란다가 자신의 체포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보였다. 미란다는 수감된 상태에서 국민공회에 연단에서 직접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7월 13일에 기회를 얻었다. 사실 미란다는 자신이 왕정 회복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

다 : “1. 미란다가 1793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마스트리히트 포격 당시 공화국의 이익을 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난 3월 5일, 리에주를 포기하고 퇴각할 때 미란다가 공화국의 이인을 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난 3월 18일 네르빈덴 전투에서 좌측 부대를 지휘한 미란다가 공화국의 이익을 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35)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8, p. 563.

36) *Ibid.*, pp. 562-563.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했다. 이미 반역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혁명재판소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자신이 보르도에 가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재판도 없이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였다고 국민공회 의원들 앞에서 항변했다.<sup>37)</sup> 그러나 미란다가의 항변은 아무런 반향을 가져오지 못했다. 체포된 직후에 한 항변에도 국민공회 의원들은 이 문제는 사법 당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1795년 1월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미란다가의 목소리는 묻혔다.

미란다가에 따르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그 누구에게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란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억울했던 혐의사항 외에 정확한 수감 이유를 요구했다. 1794년 12월 15일, 미란다가 투옥 중 그를 따르던 한 인물로부터 받은 한 편지는 미란다가의 처리 문제를 맡은 세 위원회, 즉 구국위원회(*comité de salut public*), 보안위원회(*comité de sûreté générale*), 그리고 전쟁위원회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해준다.

“1° 미란다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벨기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고, 이 사실은 그를 매우 의심스럽게 만든다. 벨기에 사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구국위원회는 미란다가 소(小) 카페(루이16세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혁명재판소에서 무죄 방면되었을 때부터 고발했다. 구국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37)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8, pp. 657-658. 실제로 보르도에서는 1793년 6월 20일에 산악파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지롱드파는 산악파가 민중들과 함께 주도한 봉기로 인해 6월 2일에 사실상 몰락했는데, 몸을 피하는 데 성공했던 지롱드파 의원 및 당원들이 각지에 퍼져 캥, 보르도, 님, 마르세유, 툴롱, 리옹 등을 장악하면서 국민공회에 대항하는 반란인 ‘연방주의 봉기’(les insurrections fédéralistes)가 일어났고, 보르도에서 일어난 반란도 ‘연방주의’의 일부였다. 지롱드파와 왕정의 회복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루이16세 재판 과정에서 지롱드파가 처형에 반대했고(대표적으로 브리소), 또한 왕당파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왕당파는 리옹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도 했고, 또한 툴롱을 장악하고 1793년 12월에 나폴레옹이 탈환할 때까지 버티기도 했다.



한다.”

“3° 미란다와 뒤무리에가 서로 결별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들은 같은 길을 걸지 않았다. 뒤무리에는 오를레앙 공을 위해 일했고, 미란다는 소 카펠을 위해 일했다.”

“4° 미란다는 에스파냐 인으로서 귀족이다. 에스파냐는 루이16세의 아들을 위한 여러 제안을 했다. 따라서 미란다는 외국의 요원이자 왕당파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5° 현재 악의가 왕정주의 정부를 고발했다. 만약 누군가 왕정 지지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한 남자를 풀어준다면, 우리를 정부로 이끌 것이라는 험담을 믿게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정부의 한 구성원이 미란다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왕당파는 단 한 명뿐이라면서 가장 불쾌한 방식으로 망상으로 인해 우리에게 덤벼들기까지 했다.”<sup>38)</sup>

결국, 이 편지에 따르면 미란다는 부르봉 왕실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수감중이었다. 외국인인 미란다는 다른 곳도 아닌 부르봉 왕실이 지배하고 있는 에스파냐 국적이었고, 더욱이 평민 출신이 아닌 귀족출신이었으며, 그에 따라 부르봉 왕실의 복귀를 바라고 있고, 마지막으로 적국 오스트리아로 도주한 뒤무리에의 부하이기까지 했다. 미란다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자코뱅이 테르미도르 9일의 사건으로 몰락했고, 이 사건을 주도하고 또 권력을 잡은 인물들은 안정적인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화력2년의 급진화된) 혁명을 끝내려고 했다. 그러나 미란다의 수감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테르미도르는 혁명 전 사회로 돌아가려는 반동이 아니었다. 미란다는 테르미도르 정국에서도 권력자들이 보기에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었고, 자유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

1795년 1월 15일, 미란다는 라포르스(La Force) 감옥에서 석방됐다.<sup>39)</sup>

38)BNF, 8-PM-266 (12),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I*, p. 443.

39)Karen Racine, *Francisco de Miranda*, p. 129. Racine은 미란다의 석방을 두고 구국위원회(comité de Salut public)에서 긴 토론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 위원회의 의사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석방되기 직전이었던 같은 해 1월 2일, 미란다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항의문을 국민공회에 보냈다. 이 항의문에서 미란다는 테르미도르 반동이 있기 전 수감된 사람들은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후 모두 석방됐는데 자신만 여전히 수감 상태라면서 운을 뚫 뒤,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공회의 가장 큰 잘못을 지적했다.

“... 매우 중요한 범죄를 국민공회에 고발했다. ... 엄청난 혐의자를 벌하지 않거나, 무고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 ... 자유에 반하는 이 두 가지 범죄는 결국 나를 불법적으로 가둬둔 것에 있다. ...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나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둔 사회체가 범죄자이다. 이 경우 나는 나를 합법적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한다. 나는 법이 가진 힘에 의해 자유롭게 죽는 것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 법의 무시를 받는 노예로 살기는 싫다. 만약 내가 무고하다면, 아무런 판결도 없이 나를 감옥에 가둔 사회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 경우, 나는 사회체의 이익을 위해 나의 자유를 요구한다. 나는 국민공회가 이러한 사회에 대한 범죄를 중단하길 요구한다. 내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다.”<sup>40)</sup>

이 지적만 본다면 미란다는 불만은 자신의 체포과정에서 결여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미란다가 1793년 7월에 체포된 이후 계속 제기한 것이었다.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되는 것은 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테르미도르라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 이후, 미란다는 구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 및 그와 가까웠던 인물들과 관계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처럼,<sup>41)</sup> 미란다 역시 그를

40)BNF, LB41-1568, *Miranda à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pp. 3-4.

41)이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프로야야르 신부(l'abbé Proyard)는 로베스피에르와 루이16세 내외가 파리의 루이르그랑(Louis Le Grand) 고등학교에서 만났다는 일화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 일화는 로베스피에르가 이 때 루이16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루머의 발원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고 : Hervé Leuwers, *Robespierre* (Paris: Fayard, 2014) ; Marc Belissa et Yannick Bosc, *Robespierre. La fabrication d'un mythe* (Paris: Ellipses, 2013).

체포하고 수감시킨 시대를 비난했다.

“개인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켜야 한다는 쿠통(Couthon)과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끔찍한 격언은 이들이 폭정을 세울 수 있게 만든 치명적인 도구이다. 이 사악한 원칙으로 티베리우스와 펠리페2세가 인류의 절대 다수를 노예로 만들고 모욕할 수 있었다.”<sup>42)</sup>

미란다는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감옥으로 몰아넣은 공포정을 비난했다. 1795년 7월, 미란다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 및 폐단의 해결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팜플렛을 출판했다. 미란다의 체포 및 투옥과 프랑스의 문제점은 무슨 관련이었을까? 미란다는 23페이지에 불과한 이 짧은 글에서 “지난 6년간의 혁명은 인민의 역사에서 권력의 혼동이 가져온 폐단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sup>43)</sup> 미란다에게 로베스피에르와 구국위원회의 폭정은 바로 권력의 혼동이 가져온 결과였다. 즉, 입법권력은 행정권력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그 기능을 흡수했으며, 사법적 판결을 직접 내리기도 하는 등 사법권력까지 장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공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폐단 그 자체였다. 미란다 자신도 정당한 재판 없이 입법권력의 단독 결정으로 구금되었고, 자신의 목소리는 아무런 반향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 국민공회는 지금까지 그 어떤 폭군도 누리지 못한 매우 큰 권력을 가졌다. 각 권력은 법, 관행, 또는 인민의 믿음에 따라 구성된다. 그러나 국민공회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다. 또 모든 것을 재구성하려고 했다. 결국 국민공회는 아무 것도 존중하지 않았고, 국민공회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다. 국민공회는 굴복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분쇄했다. 국민공회는 자신에게

---

42)BNF, LB41-1568, *Miranda à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p. 9.

43) *Opinion du général Miranda sur la situation actuelle de la France, et sur les remèdes convenables à ses maux*, à Paris, De l’Imprimerie de la rue de Vaugirard, N°970, An troisièm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p. 6.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경험한 프랑스혁명

대항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들의 싹을 모두 잘라버렸다.”<sup>44)</sup>

미란다가 보기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철저한 권력 분립이었다. 미란다는 미국과 같은 3권분립을 상정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 프랑스는 현재와 같은 입법·행정·사법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였다. 1791년 헌법에는 ‘사법권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입법권력이나 집행권력(pouvoir exécutif)과 같은 지위가 아니었고, 단순히 사법적 기능만을 뜻할 뿐이었다. 사법권력이 다른 두 권력과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1795년의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관념이었다.<sup>45)</sup> 미란다는 사실상 2권 분립 상태였던 프랑스에 대해 말하면서 세 권력 구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세웠고,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감시를 강조했다. 또한, 모든 권력의 원천은 인민이기 때문에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6)</sup>

미란다가 강하고 안정화된 국가의 본보기로 든 사례는 미국과 영국이었다. 미란다가 여행하거나 체류했던 두 나라 모두 강력한 행정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유지하는 곳이었다. 미란다는 “시민적 자유”로 인해 인간의 활동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한 일탈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민의 수에 비례하여 행정부의 힘은 더욱 강력해져야 했다. 따라서 프랑스에는 매우 강한 정부가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인민이 정부 위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47)</sup> 민중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양원제 도입, 그리고 한 명 또는 두 명의 수장과 6명의 장관이 이끄는 집행권력 등 미란다는 인원 측면에서 최소화되고 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 그리고 민중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주장했다.

---

44) *Ibid.*, p. 6.

45) Michel Troper, *Terminer la Révolution. La Constitution de 1795* (Paris: Fayard, 2006), pp. 181-184.

46) *Opinion du général Miranda*, p. 7.

47) *Ibid.*, p. 10.

사실 이러한 미란다의 생각은 당대 정치 이론 또는 정치사상 측면에서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테르미도르 9일 이후 공화력 3년 동안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등장한 공화력3년 헌법 및 총재정부(Directoire)는 앞서 미란다가 생각한 체제와 유사했다.<sup>48)</sup> 인민의 정치 개입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로서 양원제, 소수의 행정부 수장과 같은 요소들은 공화력2년에서 빠져나오려던 테르미도르 국민공회(Convention thermidorienne)의 주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sup>49)</sup> 그리고 공화력 3년 및 총재정부기는 여전히 민주정과 공화정 또는 공화주의라는 관념이 명확하게 자리잡히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양자가 서로 결합하려던 시기였다. 고대를 연상시키는 민주정은 프랑스에서 공포정을 거치면서 혼란스러운 체제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고, 공화정과 왕정은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군주제 공화정이라는 관념도 있었고, 당연히 입헌군주정 역시 공화정이 될 수 있었다.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를 통해 자신의 저서가 프랑스에도 알려진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공화정 또는 공화국이란 특정한 정부 형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모든 정부를 일컫는 말이며, 이렇게 수립된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48) 새로운 체제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공유하던 사람 중에는 미란다의 상관이었다던 뒤무리에도 있었다. 뒤무리에는 『프랑스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조망』(*Coup d'oeil politique sur l'avenir de France*)과 『공화국에 대하여』(*De la République*)에서 소수에게 정부의 수장직을 맡기고 양원제를 도입해야 하며, 자신은 로베스피에르 등이 주도한 폭정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추구해야 안정화된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테르미도르 9일 이후, 자신을 변호하고 정치적 조류에 편승하는 글이 많이 등장한 시기가 이어졌고, 이 두 글을 1795년에 펴낸 뒤무리에도 마찬가지였다.

49) 이 시기 공화정, 민주정, 대의제와 관련된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고 : 김민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17세기 영국에서 18세기 프랑스까지」, 『서양사연구』, 51집(2014) ; 김민철, 「프랑스 총재정부기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서양사연구』, 53집(2015) ; Raymonde Monnier, “‘Démocratie représentative’ ou ‘république démocratique’ : de la querelle des mots (république) à la quer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25(2001) ; Minchul Kim, “Démocratiser le gouvernement représentatif? La pensée politique d’Antoine français de Nantes sous le Directoir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96(2019).

공화적이어야 했다. 즉 공화정 역시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는 고대적인 관념에서 큰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근대적인 관념으로 전환되고 있던 것이다.<sup>50)</sup> 공화정과 왕정은 루이16세 처형 이후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지만, 공화력 3년에 두 개념은 여전히 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미란다 역시 이러한 개념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혁명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뒤무리에와 관련된 음모론에서 자유로워진 이후 자신이 다시 자코뱅 정권의 희생양이 된 것은 “혁명가가 아니라 공화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sup>51)</sup>

미란다에게 테르미도르 9일은 “혼란을 종식”시킨 “다행스런 혁명”으로서 자신이 언급한 폐단을 없애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준 날이었다. 국민공회는 새로운 헌법이 발표되고 양원제 의회로 바뀔 때까지 계속 존속했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을 바꾸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란다가 지적한 폐단의 원인은 모두 정당한가? 1793-94년에는 확실히 입법권력이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1794년에는 집행위원회(commissions exécutives)를 설치하면서 입법권력이 집행권력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모두 흡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민중의 뜻을 거스른 것일까? 국내외의 위기 속에서 프랑스혁명으로 얻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혁명가들을 압박한 민중들, 그리고 다급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 등은 과연 미란단의 말처럼 폭정의 결과였을까?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정국에서 미란다는 로베스피에르 등 공포정치와 관련된 인물들 및 기관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자유의 화신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분위기에 편승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미란단의 프랑스 체류는 해피엔딩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

50)Serge Audier, *Les théories de la république* (Paris: La Découverte, 2004), pp. 39-40.

51)BNF, 8-PM-266 (12),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I*, p. 453.

## V. 나가는 말

미란다의 프랑스 체류는 대서양의 동쪽과 서쪽을 넘나드는 그의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왕정을 몰락시킨 프랑스에서 자유를 위해 스스로 투쟁을 벌이는 민중을 보았고, 또 그 자신도 자유를 위한 투사로서 프랑스군의 장교가 되었다. 그러나 체포, 투옥, 추방을 겪으면서 미란다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 자유의 화신 또는 자유의 투사가 아니었다. 미란다가 쓴 항의서한 및 팸플릿은 그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자유를 가장 잘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총재정부가 보기에 그는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총재정부는 미란다와 미국 및 영국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고, 결국 미란다를 최대한 멀리하려 했다.

1795년 10월 21일, 미란다는 왕당파의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다시 체포 대상 인물 명단에 올랐다. 몸을 숨긴 미란다는 1796년에 추방 명령을 받았고, 1797년에 일어난 쿠데타 직후에도 프랑스가 원하지 않는 인물로 지명되었다. 이제 미란다는 프랑스 및 프랑스에 대한 환멸에 휩싸였다. 미란다는 런던으로 돌아갔고, 아메리카 해방에 대해 같이 논의하던 인물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아메리카로 돌아가 베네수엘라 독립에 뛰어들게 된다. 미란다는 베네수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중, 천재지변으로 자신의 부대가 와해되자 공금을 챙겨 달아나려고 했다.<sup>52)</sup> 후일을 도모하려던 것인지, 개인의 안위만 생각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방운동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처럼 보았고, 결국 그를 붙잡아 에스파냐에 넘기게 된다. 그리고 미란다는 에스파냐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미란다는 스스로 에스파냐 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카라카스였고, 그의 조국은 남아메리카였다. 미란다는 식민지 출신으로서 자신의 특수한 정체성에 따른 대우를 받았다. 고향에서는 크레올(크리요오)

---

52) 벤자민 킨, 키스헤인즈, 김원중·이성훈 역,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상』 (서울: 그린비, 2018), 421쪽.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경험한 프랑스혁명

라는 이유로 ‘반도인’(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인)들로부터 무시를 받았고, 프랑스에서는 에스파냐 인이라는 점 때문에 곧바로 부르봉 왕실과 연관된 왕당파라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미란다가 긴 여정 속에서 진행한 숙고 끝에 얻은 남아메리카 해방 계획은 결국 외세의 원조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었고, 그 외세는 미란다가 이용할 뿐이었다. 왕정을 옹호하던 미란다가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으면서 군주들로부터 관직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위해 움직이던 시기에 그는 주변인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미란다는 당대 정치 논쟁에 나름대로 참여했다. 미란다는 인맥은 당시 주요 지식인들 및 정치인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당대의 사상적 조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란다는 뛰어난 정치 이론가가 아니었던 만큼 대서양 주변에서 이어진 공화정, 공화주의와 관련된 논쟁에서 그리 독특하지 않은 일반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면서 형성된 관념, 그리고 프랑스에 체류한 경험은 안정적인 입헌주의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미란다는 생각은 당대인이 가졌던 정치 개념의 혼란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서양을 넘나드는 그의 삶처럼 대서양 양쪽에서 공유하고 있던 관념이었다. 다시 말하면, 19세기에 가장 이름을 알린 미란다가 가진 18세기적인 관념의 일부를 보여준다.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daebo.kim@gmail.com

주제어(Key words):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 프랑스혁명(French Revolution), 자유(Liberty), 대서양을 넘나드는 삶(Transatlantic life)

투고일: 2021.10.15. 심사일: 2021.11.10. 게재확정일: 2021.11.12.



<국문 초록>

프란시스코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경험한 프랑스혁명  
: 프랑스혁명에 대한 시각과 이상적 정치체제, 1792-1795

김 대 보

프란시스코 미란다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프랑스 혁명전쟁에도 군 지휘관으로 참가한 인물이었다. 대서양을 넘나드는 긴 여정 끝에 런던, 그리고 파리에 정착했고, 자신이 가진 남아메리카 해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유럽 강국의 협력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란다는 프랑스 혁명기 브리소파가 세운 남아메리카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정치 및 외교 상황, 그리고 프랑스 국내의 복잡한 상황에 얽히면서 자신의 자유를 잃었으며, 그 와중에 안정적인 입헌주의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강화했다. 테르미도르 9일 이후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글을 통해서 한 국가의 정체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서술을 한 미란다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인물이 아니었고, 당대의 관념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Abstract>

The French Revolution Experienced by Francisco de Miranda  
-The Vision on the French Revolution and His Ideal of Political  
System, 1792-1795-

Kim, Daebo

Francisco de Miranda, from Venezuela, is a figure who fought in France's revolutionary war as a military officer. After a long transatlantic journey, he settled first in London and then in Paris, where he asked politicians for collaboration in order to realize his plan for South American liberation. Moreover, he is also a key man in the vast Brissotin project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the Spanish colonies in America. However, he is deprived of his liberty in the complex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 not only in France but also in Europe. During his political detention, he concretized his idea on the stable constitutional republic which was fashionable in the post-Thermidorian period. Author of several texts on the political and governmental system after 9 Thermidor Year II, Miranda was not a man ahead of his time, but rather a man of his time, that is to say the 18th century.

참 고 문 헌

1. 1차 사료

*Archives parlementaires*, tome 60, 68.

Rojas, Aristides (ed.), *Miranda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Recueil de documents authentiques relatifs à l'histoire du Général Francisco de Miranda, pendant son séjour en France de 1792 à 1798* (Caracas: Imprimerie et Lithographie du gouvernement national, 1889).

BNF, LB41-598B, *Miranda à ses concitoyens. Discours que je me proposais de prononcer à la Convention Nationale, le 29 mars dernier, le lendemain de mon arrivée à Paris.*

BNF, LB41-618, *Extrait du procès-verbal des délibérations du comité de la guerre, Séance du Lundi 8 avril, huit heures du soir. Interrogatoire du général Miranda.*

BNF, LB41-1568, *Miranda à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BNF, LB41-4219, Anonyme, *Précis pour Miranda*, sans date.

BNF, 8-PM-266 (11),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 Revolucion francesa: Revista de comisaria, Causas judiciales 1792 a 1793* (Caracas: Editorial Sur-America, 1931).

BNF, 8-PM-266 (12),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I, Revolucion francesa: Causas judiciales, Proceso militar y prision politica de Miranda 1793 a 1795* (Caracas: Editorial Sur-America, 1931).

BNF, 8-PM-266 (14), *Archivo del General Miranda, tomo XIV, Revolucion francesa: Cartas interceptadas 1792 a 1793, Miscelanea 1792 a 1797, Impresos y grabados 1792 a 1797, Apendice de cartas: 1792 a 1801* (Caracas: Editorial Sur-America, 1933).

*Opinion du général Miranda sur la situation actuelle de la France, et sur les remèdes convenables à ses maux*, à Paris, De l'Imprimerie de la rue de Vaugirard, N°970, An troisièm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 2. 단행본

- 벤자민 킨, 키스 헤인즈, 김원중, 이성훈 역,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상)』  
(서울: 그린비, 2018).
- Alonso, Josefina Rodriguez de, *Le siècle des Lumières, conté par Francisco de Miranda* (Paris: Editions France-Empire, 1974).
- Anselin, Paul, *Francisco Miranda. Le héros sacrifié* (Paris: jean Picollec, 2017).
- Audier, Serge, *Les théories de la république* (Paris: La Découverte, 2004).
- Belissa, Marc et Bosc, Yannick, *Robespierre. La fabrication d'un mythe* (Paris: Ellipses, 2013).
- Bohorquez-Moran, Carme L., *Francisco de Miranda. Précurseur des indépendances de l'Amérique latine* (Paris: L'Harmattan, 1998).
- Dorigny, Marce, et Rossignol, Marie-Jeanne, eds., *La France et les Amériques au temps de Jefferson et de Miranda* (Paris: Société des études robespierristes, 2001).
- Gainot, Bernard, *L'empire colonial français de Richelieu à Napoléon* (Paris: Armand Colin, 2015).
- Howe, Patricia Chastain, *Foreign Policy and the Franch Revolution: Charles-François Dumouriez, Pierre Le Brun, and the Belgian Plan, 1789-1793*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Leuwens, Hervé, *Robespierre* (Paris: Fayard, 2014).
- Racine, Karen, *Francisco de Miranda. A Transatlantic Life in the Age of Revolu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2003).
- Thibaud, Clément, *Libérer le Nouveau Monde. la fondation des premières républiques hispaniques*(Colombie et Venezuela, 1780-1820) (Bécherel: Editions Les Perséides, 2017).
- Troper, Michel, *Terminer la Révolution. La Constitution de 1795* (Paris:

Fayard, 2006).

### 3. 논문

김대보, 「뒤무리에(Dumouriez)의 망명 -명예를 이용한 변명의 탄생-」, 『프랑스사 연구』, 42호(2020).

김민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17세기 영국에서 18세기 프랑스까지」, 『서양사연구』, 51집(2014).

, 「프랑스 총재정부기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서양사연구』, 53집(2015).

양희영, 「프랑스혁명기 지롱드파의 노예제 폐지론과 식민지 구상」, 『이화사학연구』, 52집(2016).

Chappey, Jean-Luc, Gainot, Bernard, Mazeau, Guillaume, Régent, Frédéric, Seran, Pierre, *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Kim, Minchul, “Démocratiser le gouvernement représentatif? La pensée politique d’Antoine français de Nantes sous le Directoir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96(2019).

Monnier, Raymonde, “‘Démocratie représentative’ ou ‘république démocratique’ : de la querelle des mots (république) à la quer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25(2001).

Soubeyroux, Jacques, “Francisco Miranda, voyageur et philanthrope(1787-1789)”, *Cahiers du monde hispanique et luso-brésilien*, no. 17(1971).